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 순창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장간담회… 맞춤형 실행 전략 논의
가맹점 부족 문제 해소,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등 3대 전략 중심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소비 선순환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7일 순창군 인계면 다시청춘관에서 장수군·순창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장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순창군 인계면 다시청춘관에서 장수군·순창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장수군과 순창군에 지급된 약 61억원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 부족 문제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선순환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면 지역에서 기본소득 사용이 어려운 가맹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와 배송서비스 등 소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장터를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통해 오지마을 주민들이 생활

필수품과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풀리마켓을 결합한 REDFOOD 직구마켓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농협과 자활센터가 협력하는 ‘온정장터’를 운영하고, 버터 하나로 주머니 가능한 ‘AI 로컬 버터 서비스’와 마을 배송체계를 도입해 면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지역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소비 선순환 체계도 마련한다. 장수군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수형 선순환 소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소포몰 ‘장수몰’과 연계한 기본소득 결제 및 농산물 꾸러미 구독 서비스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업소를 순창 지킴이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장비구니 마켓 등을 운영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단순 소비 지원을 넘어 문화·돌봄·생활서비스와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장수군은 영화관과 연계한 ‘기본소득 시네마 데이’, ‘찾아가는 문화 스쿨버스’ 집수리 지원과 이동 빨래방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활용을 돕는 마을리더 운영과 소비지도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생활품 전달과 말벗 서비스를 결합한 ‘온(ON)돌봄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의료·돌봄·관광을 연계한 순창 한비위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와 장수군, 순창군은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선5기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려면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동장터와 선순환 인증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북의 특화 모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6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귀국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했던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도, 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지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 전... 국비 85억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한, 환경강 수질 개선과 악취 해소를 위한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매입기간을 4년 연장한 데 이어, 적극적인 예산 건의 활동을 통해 2025년에 국비 8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도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121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매입 절차를 이끌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수질예측모델링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 발굴 활용
아울러, 과학적인 수질 관리를 위

해 전북연구원이 구축한 ‘새만금유역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및 수질예측모델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도는 시군 환경 부서와 협력해 해당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점오염 저감 등 과학적인 신규 수질개선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설치 기본구상 용역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새만금유역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선 전북 선거범죄 잇따라

경찰, 21건 중 5건 완료 16건 수사 중... 총 26명 연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잇따른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북 지역에 접수된 선거범죄 관련 신고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이 중 5건에 대해선 사건을 종결하고 남은 1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행 중 수사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26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계’에 돌입하고 134명의 인력이 투입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축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5대 선거범죄에는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등 원 △선거 폭력 등을 규정하고 이같은

범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한다.
또 선거범죄를 두고 단순 행위자 처벌을 넘어 범행 계획·공모·지시자에 대해서도 수사하며 금품이 흘러간 정황에 대해선 자금의 원천까지도 추적 단속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유포 행위나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 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126년 역사의 군산항
군산새만금항신항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군산새만금항신항

군산시